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P. 449 A해

제1독서(이 사 5, 1-7)
제2독서(필립 4, 6-9)
복음(마태 21, 33-43)

숲 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목주를 굴리는 보조

박 종 근 신부

오늘은 열네번째 맞이하는 군인주일입니다. 전후방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군인주일을 맞아 교구내 군중신부들은 교형자매들의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병역의무를 치루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신앙인이거나 신앙에 관심을 갖는 자라면 더욱 유익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항상 새로 태어나는 삶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도 그들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고 기도중에 일치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예전보다도 더욱 하느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비록 영세는 했지만, 막연하게 느껴졌던 하느님을 뚜렷하게 만날 수 있는 체험을 얻습니다. 신앙을 갖은 친척이나 친구의 영향을 받던 젊은이들은 더욱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외면했던 젊은이들까지도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 싶어합니다. 성경과 교리서를 원합니다. 첫 교해와 첫 영성제도 원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보조와 불침번을 서면서 화살 기도와 목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사랑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와 같았던 어제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으며, 어느 형제자매가 형제에게 관심이 갖지 않겠습니까만 이렇게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채소밭에는 물을 주어야 하고, 햇볕을 원하는 화분은 양지쪽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과 교리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저희들 군중신부들이 맡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손가락 목주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목주를 나누어 주는 일도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성경·교리서·목주, 보내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군중사업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도 주세요. 저희들 군중사제들이 몸으로 뛰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구에도 군중후원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본당에도 본당신부님의 허락과 협조로 군중후원회가 생길 것입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는 군중사제를 돕는 모임입니다. 여러 본당의 군중후원회가 군중신부들을 지켜 볼 때, 저희들이 군부대를 찾아 산길을 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군인은 여러분의 자식이며 형제요, 오빠며 동생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치하십시오.

(제2훈련소 군중신부, 교구 군중후원회 지도신부)



죽음을 다시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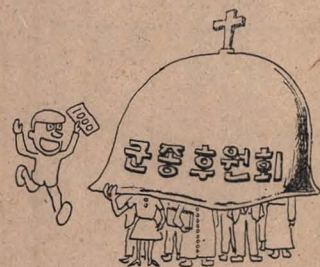
어느 교수 부부의 죽음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아무도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기에 가능한 한의 추측을 할 뿐이다. 의사인 부인이 남편을 안락사 시키고 자살을 했건, 또는 동반자살을 했건 상관없다. 문제는 그들을 흉내내는데 더 있는지도 모른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그들의 과거가 금슬이 좋았었다고 미화(?)한 신문 보도에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교수는 생전에도 화제의 주인공 노릇을 한 적이 있다. 그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업적이나 명강의에 대해서 일반 시민은 잘 모른다. 다만 그가 공인<국립대학교의 총장>의 자리에서 던진 이상한 발언—일토당토 않게 천주교를 공산당과 관련지운—은 관심있는 이들의 뇌리에는 남아있게 마련이다. 문교부차관 시절의 강경한 학사 행정—소위 학원사태에 대한—으로 관심있는 이들의 기억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문제는 죽음을 맞는 자세다. 참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에 그가 지지했던 정치체제의 유지를 위해 그토록 강경하던 그가 너무나 나약하게 무릎을 꿇은 점이 아쉬운 것이다. 결국 그는, 그에게 주어진 힘으로 남을 억누르기는 했어도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 것이다.

기독교는 피의 제사로 그 막을 연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했고, 우리 역사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선조들의 피도 그러하다. 신봉하는 진리를 쫓아내기 위해 단하나뿐인 생명을 값지게 바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천주교회가 세계 교회와 어깨를 함께 한지 150주년이 되는 금년, 그 숭한 죽음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이자.

숲 정이 산책



많이 가입합시다

★LUX MUNDI★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선교, 우리의 사명

“선교사명은 결코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우는 것이요, 참신한 건설이다”(인간의 구원자 12)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근본태도는 그리스도교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보여주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거기엔 인간의 존엄성이 요구된다. 상도(常道)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강압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 왔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절대불가결한 근본적인 전제이다. (종교자유선언 2) 신앙은 그 본질상 자유로운 동의(同意)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고 심오한 인간정신이 성취한 일을 존중하는 것은 타당한 모든 선교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진정 인간적인 것, 인간 고유의 가치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맞추어 슬기롭고 부지런하게 씨를 뿌리는 일이 선교활동이다.

그러므로 복음화된 인간 안에서, 그리고 그 인간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진진하고 정당한 것을 강조하고 발전시키는데 복음화의 활동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주의깊고 분별있는 신앙교육으로써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긴 생(生)의 찌꺼기와 굳은 껍질을 정화하여 정신, 종교,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자라게 하고 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이 닿는 곳에 사랑이 닿는다”라고 하였던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인간성을 건설하는 선교활동은 현대세계의 적잖은 죄악 곧 불의, 억압, 착취, 소외, 고독을 해결하는 사랑의 수단이어야 한다.

구원을 널리 선포하는 일은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부과된 막중한 과업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기도로써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감수하며 선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0월은 전교의 달—, 모든 신자들이 당신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선물을 믿지않는 이들에게도 나눠 주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명령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달(月)이다.

□ 지역별 현양대회 성대히 거행

복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인 27일 교구내에서는 고귀한 순교자들을 현양하며 가신 길을 본 받고자 각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다채로운 행사를 갖었다.

제6지역(무주·장계·장수·진안·한들) 5분당 600여명의 신자들은 장계에서 김재덕 주교님을 모시고, **제7지역**(여산·용안·함열·화산·황등) 1,000여명의 신자들은 함열에서 각각 모여 각종 친목경기, 행사 등으로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

제3지역(고산·금마·삼례·주현·창인)에서는 약 20,000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였다. 창인동에서 현양미사 및 순교자 유물전시 특별강연 등을 시작으로 영광스런 성체 거동으로서 모든이의 마음에 순교의 본뜻을 다시 생각하고 각자의 생활을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 주현동에 도착하여 성체강복으로 대회를 마쳤다.

제2지역(대야·둔율동·오동·월명·팔마) 5개 본당은 20대의 대절 버스로 고산 용추네 천호성지를 참배하고 순교자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했다. 성지개발을 한 후 최대의 순례단을 맞이한 성역에서는 환호성이 산등성이를 타고 하늘에 닿는듯 했다.

제4지역 8개 본당에선 상관본당과 함께 2,000여명의 신자들이 높고 험한 바위산인 치명자산에서 순교의 깊은 뜻을 새기며 엄숙한 미사 봉헌이 있었다. 그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한것은 전통 주일학교 어린이 200여명의 참석이라 생각한다.

언제나 단결을 잘해서 부러움을 독차지했던 **제1지역**(고창·김제·부안·수류·진태인·원평·정읍)과 **제5지역**(남원·순창·임실)은 각 본당별로 행사를 갖었는데, 지역단위로 합심된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었다. 다만 부안에서 나바위 성지를, 임실에서 솔피 성지를, 남원은 치명자산, 정읍·고창은 배론 성지를 참배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번 행사를 형식에 그치는게 아니고 마음에 담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아닌가 한다.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읍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⑤ 5669 번

주 최남수(아벨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병원) 토틀센타

◎토틀탕(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전자쥬킴기(신경통, 위장병 치료기) 판매

※(보·허122호/신안특허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주문 배달함) 전화 ⑤ 4567

황수산나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장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⑤ 0496

金樂均(요셉)

ECCLESIA

□ 10월은 전교의 달 이웃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

세말에까지 지고 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더우기 금년엔 한국 주교단의 사목지침으로까지 선포된 「이웃 전교의 해」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복음 전파와 전교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한 해다. 그레 각 본당에선 신부님들이 아마도 귀가 아프도록 연초부터 목청을 들구어 강조하고 관심 쓰셨을 줄 믿는다.

하지만, 맥없는 메아리는 아니되었는지, 정작 얼마나들 성과를 거두고 책임 인도를 했는지 우리 각자 모두 반성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달 만이라도 더욱 못다한 사명을 수행토록 해야겠다. 방문하고 권유하고 교리반에 인도하는 직접선교 뿐 아니라 이웃간에 책을 전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간접선교 할것 없이 남은 모든 정력을 다 쏟아보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마태오 10:32) 하신 말씀 명심하면서...

□ 150주년 신앙대회 참가 각 본당에서 박차

10월 18일 여의도 광장

순교 선열들의 피거름 위에 피어난 가톨릭—우리 한국 성교회(聖敎會)의 뿌듯한 잔치 평화의 대 행렬에 교구내 각 본당들이 다투어 참가를 서두르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본당은 물론 농촌교회 전 본당이 기차나 버스를 내걸 계약하면서 일대 단합된 전 주교구의 모습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고 있어 참으로 흐뭇하기 이룰때 없다. 모쪼록, 공사(公私)에 바쁘고 힘겨운 여행일찌라도 두루 두루 모든 교우 함께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9월30일 현재까지 보고 집계된 참가예정 숫자는 약 3천여명 이다.

□ 교구 인성회 수해지역에 의연금 전달

태풍 「애그니스」는 남부지역에 너무나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교구 인성회에서는 형제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광주교구 산하 수해지역에 긴급 구호금 일백만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교구에서 파견된 전종복 신부의 소임자인 보성을 돕기 위한 헌금 모으기가 본당마다 한창인데 전국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한 그곳에 파스한 손길이 모아지길 바란다.

□ 김종길 신부 교구에 시청각 기재 기증

김종길 신부(부안 주임)는 소장한 시청각 기재를 교구 차원의 교육과 더 많은 이들의 혜택을 위하여 교구에 기증했다.

확대기(Overhead Projector)1대, 영사용 스크린, 신·구약 슬라이드 필름 1조 등을 배척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많은 활용을 바란다.

□ 정읍본당, 고창 동해원에 오르간 기증

정읍본당 부녀신자 10여명은 신앙으로 기쁨을 찾고, 하느님을 믿고 찬미하는 것으로 생활의 보람을 찾는 고창 동해원공소 신자들에게 새 오르간을 기증한 미담이 있다.

이를 밝히길 꺼려하는 이들은 환회에 찬 전례 분위기로 그곳 교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있길 바란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임을 새롭게 실천한 이들에게서 넓은 마음을 배우자.

요십이(426) 김병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파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2176

□신장개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 2 5 1 3
한 철 재(비오)

* 생 활 정 보 *

★ 순 명주솜 식별 방법 : 명주(SILK)는 섬유중에서 가장 염색이 잘 됨으로 솜을 조금 뜯어 잉크에 적셔 보아 진하게, 고르게 염색되면 이물질이 안섞인 순 명주라고 믿어 좋습니다

★ 고급 명주솜이란? : 순 누에고치를 가공 타면 한솜으로 부피가 크고 탄력과 장력이 우수합니다. 누에고치 솜은 솜을 조금 뜯어 불태 섬유가 10~20cm 정도 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 보통 명주솜이란? : 제사공장에서 명주실을 뽑고 난 제사설로 가공 타면 한 솜입니다

제사에서 생산되는 하이실크(本絹) 솜은 순 누에고치 고급 명주솜입니다(공장도 가격 3.75kg ₩30,000원)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앞 해성제면공업사 전화 ㉠9045 대표 소 병 을(무가)

1. 81년도 평가, 82년도 계획수립 합동회의: 10월 5일<월> 오전 10시 센타 강당 참가대상-제위신부, 사도회장, 기관장, 교구단위 각 단체장, 각 수도회 대표
2. 제 5 지역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일시-10월 9일 오전 10시 장소-순창 천주교회, 참가비-15,000원(본당별)
3. 문학강좌: 10월 10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타, 주제-형식주의 문학의 이론, 강사-김지수(문학평론가)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사도 회장 박인규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사도회 월례회: 10월 8일 오후 7시 10분 본당신부 방
2. 병자방문: 10월 6일<화> 사무실에 연락해 주세요
3. 교리시작: 부활반 교리 금일부기 시작합니다
4. 조선교구 설정 15주년 기념행사 참가: 10월 18일 10시, 여의도 광장, 전주출발 17일 밤 11시 전주역
5. 어머니합창단 월례회: 10월 8일<목> 성당
6. 군인주일: 10월 4일은 군인주일입니다
7. 상지회: 10월 9일 가족동반 야유회
8. 성당 및 제대수리: 문지식·김기자·임익도·고재상
·강정후·박종찬·이복석·이누시아·김귀례·이봉
·한일수·소효순·차규복·김기순·하정호·최두
·실라·김빛다·조마리아·이인순·최종선·권수산나
·문정남·박일순·박찬훈·심옥봉·전병전·소홍영
·이금남·최정호·이정호·최창숙·오혜하나·최성
·금·박경자·이상범·백모니카·엄정숙·방지거삼회
·상지회, 총 헌금액: 4,069,800원
총 공사비: 4,449,010원 부족액: 379,210원

□ 지난주 봉헌금: 266,956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8시~10시까지 주제-유체(有体)적 부활, 루가 24장34~43절, 요한 복음 20장 19절 이하를 중심으로 합니다
2. 수녀님들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3. 조선교구 설정 15주년 기념행사: 18일(일) 서울 여의도 광장, 왕복승차권을 사무실에서 예매중
4.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본당 꾸리아 회합: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1로마서 전체
8.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매주<금> 오후 8시부터

□ 지난주 봉헌금: 210,92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신앙대회 참가자: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4,500원
2. 주일학교: 2시 교리, 3시 미사
3.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성서·성가집 지참합니다
4. 애령회 회차금: 김봉기-발도르메로 형제 (150,000)
5. 본당내 신자 가정에서는 본당으로 엮어 1장씩 보내주세요 ※ 주소파악을 위하여 전화번호·주소·통반
6.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11시
7.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11월말까지 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1,850원

(북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조선교구 설정 15주년 기념행사: 일시-10월 18일 서울 여의도광장, 출발 전주역-17일 저녁 11시집결 열차표 본당 사무실에서 판매중(선착순) 4천5백원
2. 견진하실 분은 속히 신청바람: 신본당에서 영세하신 분은 세례증명서 1통을 해오세요, 견진비-1천원
3.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이충원·정경진)
4. 복자부녀회: 10월 5일 어머니미사 후
5. 부녀회에서 엮가로 품질좋은 일용품 판매하고 있음
6. 군인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음, 전납 수해헌금
7. 은퇴신부님들을 위한 헌금을 오늘까지 내주세요
8. 다음주 전례: 해설-최가다리아
독서-①장동주 ②고희원

□ 지난주 봉헌금: 194,48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매일 미사후 성월기도 있음
2. 사도회 월례회: 10월 4일 공식미사 후
3. 조선교구 150주년 기념행사(여의도 광장) 10월 18일 10시, 열차표 사무실에서 예매 4,500원
4.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10월 6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아동미사 주일 오후 3시로 변경
5. 미사시간 변경 주일 아침미사-6시30분, 공식미사-10시, 밤미사-7시, 평일 아침미사 없고 밤미사 7시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례 독서-①박한태 ②이원일, 기도-정주복

□ 지난주 봉헌금: 192,25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예비자 교리안내
① 박수녀님반-매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② 이수녀님반-매주 토요일 오후 3시30분~4시30분
③ 박신부님반-매주 수·목 오후 8시~9시
2. 예비자 봉헌: 전교의 달에 1인이상씩 봉헌합니다
3. 성서 40주간 공부: 매주<금> 오후 8시<사제관 2층>
4. 중·고 교리경시대회 시상 특등<연합회 고등부 2등> 김병석-상장 및 부상(4만 원), 중등부 1등-김용욱, 2등-윤대식, 3등-조형진, 고등부 2등-손미정, 3등-범진선
5. 구역회합 지도위원 모임: 6일 오후 8시 사제관 2층
6. C.O.I 교육: 오늘 저녁미사 후 있음
7.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8. 사도회: 공식미사 후
9. 다음주 전례담당(10월 11일)
아침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최병래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양현웅, 독서-①백종홍 ②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변해석 ②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7시30분
2. 군인주일 특별강론: 군중-김성진 신부님
3. 사제관 방 2칸 수리(30만원): 익명의 독자가
4. 10월 7일은 미사 없습니다
5. 10월 18일 신앙대회 왕복기차표: 4천5백원
6.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 사제관 방수리 헌금: 조창환(2만원)

□ 지난주 봉헌금: 47,330원 교무금: 88,000원

제4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미 사 순 서

1981. 9. 27.

입 당 성 가 : 공 275 번 (순교자의 믿음)

환난과 핍박중에도 순교의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순교의 믿음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왔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리라
순교의 믿음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제 1 독 서 : 에제키엘서 18, 25-28 (신구약 합본성서 1401페이지)

총 계 송 : 공 69 번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들나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제 2 독 서 : 필립 2, 1-11 (신약성서 378페이지)

복음전 성가 : 공 63 번 (구하시오 받으리라)

구하시오 받으리라 찾으시오 얻으리라
두드리시오 열리리라 (후렴)

구하시오 받으리라 찾으시오 얻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시오 받으리라

복 음 : 마태 21, 28-32 (신약성서 43페이지)

봉 헌 성 가 : 공 81 번 (주여, 나의 몸과 맘)

공 83 번 (주님은 나의 목자)

공 90 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공 103 번 (주님 안에 하나)

공 121 번 (사랑의 신비)

공 124 번 (야훼는 나의 목자)

공 102 번 (천상의 음식은)

퇴 장 성 가 : 가톨릭 성가집 127번 (장하다 복자여)

장하다 복자여 주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녀이어
칼아래 쓰러져 백골은 없어도
푸르른 그충절 찬란히 지켰네

기우는 정의의 목숨을 건지려
주님과 치위와 죽음과 싸우며
겨레의 힘으로 찾아온 진리를
굳세게 굳세게 피로써 지켰네

후렴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복자시여
승리의 빛난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